

그대들 어떻게 살 취업할 것인가

동아대 IT취업 동아리

정도현 - 로보코 대표

발표자 소개

정도현

- ROBOCO.IO 대표
- 1995년 12월 유니텔 사업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시작
- AWS 시니어 개발자 및 트레이너로 8년 반 동안 재직
- 일본에서 14년동안 IT 컨설턴트 및 SI 개발자로 재직

오늘의 로드맵

1. 프롤로그: 시장 현실 체크
2. AI를 활용한 Working Backward 구직 전략
3. 바이브 코딩 × CBL 운영법
4. 결론

시장 스냅샷

- 테크 채용 포스팅: 팬데믹 이후 급락 후 저점 부근
- AI/ML·데이터센터 직군은 상대적 강세
- 신입·주니어 진입 장벽 상승

글로벌 빅테크 동향

- Google: 2024~25 선택적 구조조정, AI 중심 재배치
- Meta: '효율의 해'(2023) 이후 초정예 AI 채용 재개
- Amazon: 사업부별 조정 + AI 인프라 투자
- Microsoft: 게임/일부 사업 부문 감원, AI CAPEX 확대

한국: 네.카.라.쿠.배

- 네이버: 2023 신입 1,311명(전년 1,409명 → 완만한 감소)
- 카카오: 2023 신입 1,014명(전년 1,726명 → 큰 폭 감소)
- 라인.쿠팡.배민: 공시.보도 혼재, 직군별 상이

파이프라인 효과

- 최상위 기업 축소 → 상위권 전이 차단
- 중간·하위 기업도 신규 수요 위축
- '경력 점프' 루트 축소

취업 빙하기의 진짜 원인은? 경기 vs AI

- 경기/금리/광고시장의 사이클 효과
- 팬데믹 과잉 채용의 반작용
- AI/자동화의 구조적 영향

구조적 변화의 증거(1)

- 기업 차원: 채용 보류/재배치 사례
- 역할 차원: AI 노출 높은 업무의 변화

구조적 변화의 증거(2)

- 개발 생산성: Copilot 등 사용 시 가속
- 조직은 “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결과” 지향

신입·주니어에 무슨 일이?

- 엔트리 레벨 공고: 2023.1 대비 35% 이상 감소
- AI 노출 높은 직군일수록 낙폭 확대
- 인턴십/트레이닝 트랙 축소

So What: 전략의 전환

- “지원서”보다 “증거”
- “이력서”보다 “작품집”
- “교육과정”보다 “도전-증명 루프”
- 당근: 바이브 코딩 경험자 인턴 채용

Working Backward란?

- “이상적 JD → 역설계한 프로필 → 증거 프로젝트”
- 시니어 JD도 OK: 기준을 높게
- 목표 중심, 증거 중심

Step 1: 타겟 JD 수집

- 목표 기업 및 직무를 정해 5개 스크랩
- 요구 역량·증빙 포인트 추출
- 공통분모 도출(스택/도메인/아키텍처)

Step 2: JD → 역프로필(프롬프트)

- 요구 기술/성과 → 나의 가상 프로필
- 공백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 목록
- 우선순위·난이도·기간 산정

다음 JD를 분석해 ‘합격 가능한 가상 프로필’을 만들어줘.

- 1) 핵심 역량/경험 (증거 포함)
- 2) 1주 프로젝트 4개 로드맵
- 3) 각 프로젝트의 검증 기준(KPI/벤치마크)

Step 3: 프로젝트 설계 원칙

- 실사용 가설·측정 가능 KPI
- 리드미·데모·테스트 자동화
- 재사용 가능한 설계 패턴

1주 프로젝트 사이클

- 1주일을 기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공유하는 사이클
- 문제정의·성공기준·계획
- 설계·구현·검증
- 리드미/데모/블로그
- 리팩터·회고

1주 프로젝트의 핵심

- 가설을 세우고 검증
- 실패와 성공 모두 면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한다
- 다음 이터레이션의 토양분으로 삼는다
- 프로젝트를 일상화 한다
- 회고 결과는 블로그에 공유한다

Day-by-Day 예시

- 월: 사용자 스토리·벤치마크 선정
- 화: 아키텍처 초안·스키마 설계
- 수: 핵심 경로 구현(스크립팅·자동화)
- 목: 부하/정확도 테스트·로그 수집
- 금: 데모 영상·블로그·PR
- 토/일: 코드 청소·FAQ·면접 질문 정리

바이브 코딩이란

- AI를 활용해서 “학습 ↔ 구현” 동시진행
- 답보다 “대화 기록(근거)” 중시
- 실행-피드백-개선의 템포 유지

Google AI 프로 플랜 2026년 8월 6일까지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!

- Gemini 2.5 Pro + Gemini CLI: 개발도구 및 AI챗봇
- Deep Research: 학습에 활용
- NotebookLM: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
-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!

산출물 표준

- README: 문제·가설·KPI·결과
- Github 리포지토리
 - 테스트가 포함된 코드
 - 이슈/프로젝트
 - Github Actions 를 활용한 워크플로우 자동화
- BLOG: 설계 의사결정 기록

포트폴리오 운영

- 깃허브 프로필 + Top 핀 6개로 큐레이션
- 주간 릴리즈 노트 발행
- 이슈·PR 템플릿: 재현성 확보

면접 스토리라인(STAR+AI)

- Situation/Task: 문제 맥락·제약
- Action: 선택·실험·근거
- Result: 수치·회고·다음 단계
- AI: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

CBL(Challenge Based Learning)

- 목표: “도전→해결→공유” 순환
- 전통 커리큘럼 대신 과제 중심
- 결과물 공개·피드백 내재화

AI=24시간 멘토

- 질문→계획→코드→테스트 루프
- 반례 생성·리뷰·리팩터 코치
- 한계: 환각·저작권·보안 리스크

마인드맵 학습법

- 중심: 타겟 JD/챌린지
- 1덱스: 기술·도메인·제약
- 2덱스: 실험·데이터·KPI
- 브랜치별 학습 → 즉시 적용

품질·윤리 가드레일

- 라이선스·데이터 출처 표기
- 비공개 키/비밀정보 보호
- AI 생성물 검증·표절 체크

실패 로그 = 자산

- 가설 실패 기록·원인·교정
- 리팩터 전/후 수치 비교
- 인터뷰 대비 Q/A 축적

두 가지 길

- 정석 루트: 공채.인턴.과제.코테
- 도전 루트: 바이브 코딩 능력을 증명한다

지금 시점에 코테 대비하는게 의미가 있을까?

- 기관총이 발명되었는데 활쏘는 법을 배우는게 의미가 있을까?
- "저는 바이브코딩으로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"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솔깃하지 않을까?

스터디에 대한민국 최고 바이브 코딩 고수들이 계십니다!

- 저
- 양윤상, 황진성, 정민석
- 바이브 코딩 뉴스 활용
 - <https://open.kakao.com/o/gy12RTBh>

One more thing! - 유학가지 않고 영어 잘하는 방법

- 언어는 문화임
- 어떻게 하면 많이 듣고, 많이 말하고, 많이 읽고, 많이 쓸 수 있을까?
 - Gemini 앱으로 말하기 공부
 - 무조건 질보다 양임
 - 유튜브의 구독을 관심사 + 영어로 유지
 - 한국어 콘텐츠 모두 배제
 - 자막있어도 OK - 무조건 양이 중요!
 - 국내 커뮤니티 말고 래딧에서 놀자!
 - 쉬운 영어 책을 많이 읽어보자 - 어린이 위인전인 Who Was 시리즈 추천

감사합니다!